

성경 연구

11월 2일 교훈

예레미야의 구출

핵심 구절: 왕이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끌어올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38:10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38:1-28

인류 역사 속 하나님의 모든 종들 가운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독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025년 11월 31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으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열국의 예언자로 삼았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어리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어리다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곳으로 네가 갈 것이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네가 말할 것이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4-8

젊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인생을 바꾸는 충격이었을지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태중에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비틀거렸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심지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진 듯하다.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만지시고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국과 열왕 위에 세워 뽑고 허물며 멸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노라" (9-10절). 이 놀라운 약속들로 힘을 얻은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열방에게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했다. 선지자는 시드기야와 그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 종말을 가져오실 것임을 받아들이라고 담대히 말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었다. 그들이 생존할

유일한 기회는 바빌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정복이 그들의 완고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목숨은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버려진 우물에 가두라고 고집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이는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예레미야가 내려진 우물은 진흙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예레미야 38:1-6). 우리는 그가 겪었을 신앙의 내적 갈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가 그곳에서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그를 버리신 걸까?

예레미야는 시편 40편을 되새겼을지도 모른다. "내가 여호와를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로 돌아키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끔찍한 구덩이에서, 진흙탕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확고히 하셨도다." 시편 40:1,2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진흙탕" 같은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실함과 신뢰의 본은 주님의 백성에게 계속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매우 가까이 계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46:1,2